

를 제한한다는 것은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며, 미국 내 산업의 노동자들이 감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까다로운 비자 규정 때문에 유학생들이 이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국가를 선택하게 하여 미국의 유학생의 수가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외국인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졸업 시 고용조건에 있어 현지 국내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고 있다. 만약 OPT가 제한되거나 종료된다면, 미국 내 대학들은 유학생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과 2019년의 학기에서 유학생은 미국 경제의 \$390억을 기여하며 455,562개의 미국 내 일자리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트럼프 행정부와 "Washtech"은 미국 자국민을 위한 직업을 지키고 싶어하지만 유학생들에게 비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실제 유학생들이 형성해나가는 미국 내 일자리들이 파괴가 될 것이다. 또한 유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동안 등록금, 주거비, 식사비 등을 지출할 때마다 미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셈이다. 트럼프 정부가 약속한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는 유학생 제한 조치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에서 5번째로 비중이 큰 국가 수입 경로인 유학생을 줄이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 세계의 촉망한 젊은이들을 미국의 대학에 모이게끔 한다. 그리고 이것이 모인 대학은 미국의 경제와 혁신을 주도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더욱 기업가적인 도전정신을 갖고 많은 스타트업을 주도하며 특허를 출원시킨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Mercatus center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된 분야에서는 5개에서 7.5개의 내국인을 위한 직업이 또 생긴다고 한다. 2019년 포춘(fortune)지의 500대 대기업 보고서는 500대 대기업의 45%는 이민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밝혔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번영을 촉진한다. OPT 프로그램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면 미국에 존속될 미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 이민에 대해 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는 나라로 전환될 것이다. "Washtech"과 트럼프 행정부의 OPT 프로그램 제한이 "외국인에 대한 경쟁"을 줄일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유학생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혁신의 부재로 미국 전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번역: 서영주

출처: <https://fee.org/articles/warding-off-international-students-will-destroy-us-jobs/>